

雲門

불가 2569년

여름호

통권 제172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운문雲門 안에서 심문心門을 열어보이니 불이문不二門이라. / 화엄반 혜명
- 한여름 태양처럼 밝은 지혜, 뜨거운 가슴 지니기를. / 화엄반 혜석
-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금강 같은 지혜가 되어 모든 무명, 번뇌 소멸하기를. / 사교반 현소
- 금강경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여름. / 사교반 해묵
- 뜨겁고 습한 공기 속에서 옷이 땀으로 젖어들 듯 부처님의 법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를. / 사교반 인성
- 무더위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 우리 안에 있습니다! / 사집반 재현
- 속아내고, 뽐아내고, 여름철 마음밭 농사, 얼씨구나~! / 사집반 혜염
- 여름, 옷이 가벼워지듯 마음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 사집반 도림
-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습한 더위에 노랗게 빨갛게 익어가는 열매들처럼
치문의 여름도 치열하게 알차게 익어 갑니다. / 치문반 무아
- 여름이 오면 오는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 치문반 인우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쳐다
04	죽림현	복덕과 지혜 구축하신 부처님 따르겠습니다 명성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합송합誦의 공덕 원범
08	교수논단	『기신론』과 선종의 사상적 관계 ① - 『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을 통해 본 선종의 공적지심空寂之心 원건
12	학인논단	사마타·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체계의 비교와 현대적 적용 ② 공림
17	想	영화미소 재하
18	외부기고	"Connecting Dots", 즉사이진卽事而眞, 그리고 운문사 김대균
20	선지식 탐방	본래 구축하고 본래 청정한 그 자리 - 덕민 스님을 뵈고 - 삼우
25	풍경소리	시절인연 해수
26	운문만행	방편의 불교, 수행의 불교 - 대안 불교 연수를 다녀와서 - 선재
30	수행의 두레박 하나	당신의 심장을 움직이기 위하여 명주
32	수행의 두레박 둘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 해신
34	수행의 두레박 셋	마음을 담는 공경의 길, 예배와 예불의 공덕 도선
37	차례법문	불기자심不欺自心 해묵
42	운문, 운문인	천계만사량 千計萬思量 홍로일점설 紅爐一點雪 편집부
44	이 한 권의 책	불교초보탈출 100문 100답 - 불교가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 주성
48	운문논평	AI 시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편집부
50	운문소식	
51	등불	운문사 역사문화관

복덕과 지혜 구족하신 부처님 따르겠습니다

명성 / 운문사 회주



초록으로 물들인 산과 들녘, 뜨거운 햇살은 다정한 미소를 보내고, 이름 모를 들꽃은 바람결에 덕분이라고 화답합니다.

봄에 뿌렸던 ‘복福’의 씨앗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던 인사말이 ‘복을 지으세요’라고 종종 말을 합니다. ‘짓는 것’에는 밥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도 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짓는 과정’을 살펴보면 세심한 관찰과 정성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덕德은 쌓는 것,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확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아름다운 실천이 덕의 발현이겠지요. 이렇듯 복덕福德이 갖추진 여실如實함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의 등불이 천 년의 어둠을 밝히듯 이웃을 밝게 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바라밀정원’은 아름답게 세계일화世界一華를 장엄하고 있습니다. [德不孤必有隣]

『금강경』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에서도 상에 집착하지 않고[無相]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실천하면[無住]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복덕은 물질적인 공덕이 아니라 탐욕이나 자만심에서 벗어나 경계가 없고, 넓고 깊은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부처님은 허공을 비유로 설하고 있습니다.

나는 삶과 수행이 하나라고 봅니다. 공부는 잘 하는데 일은 잘 못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불각不覺’에 대해서 ‘불여실지진법일고불각심기不如實知眞法一故不覺心起’라. 즉 여실하게 진여 법계가 하나임을 알지 못해서 망념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순간 미혹하여 한생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을 무명無明이라고 합니다. 무명은 하나임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심을 일으키고, 홀연히 일어난 이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번뇌에 묶여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옹 스님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생사生死이니, 그 순간에 바로 화두를 들어라[念起念滅謂之生死當生死之際須盡力提起話頭]”. 그렇습니다. 티베트 속담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새는 양쪽의 날개가 있어야 허공을 가로지르고,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라밀 정원에 있는 ‘원이삼점圓伊三點’의 향나무도 우주 법계 한가운데서 모자람이 없고 원만하며, ‘일즉일체一卽一切’가 되어 서로 걸림이 없는 수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도선언에서처럼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게 정진을 해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늘 밝고 긍정적인 수행자, 깊이 인과를 믿고 시주施主의 은혜를 아는, 복덕福德과 지혜로 주재하는 주인공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

‘바라밀정원’은 회주 스님께서 운문사역사문화관 앞에 조성한 정원입니다. <편집자 주>

합송합誦의 공덕

원법 /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하안거가 시작된 지 벌써 반 살림이 지났다. 운문사는 여름 결제를 시작으로 명부전에서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한다. 보리수 향기가 온 도량을 은은히 채우면 학인 스님들의 예불소리에 새벽빛이 기지개를 켜다. 108배를 끝내고 명부전으로 향하는 안행雁行의 모습은 이미 나와 도량이 하나 된 어우러짐不二이다. 금강경 독송 소리는 이 어울림에서 우러나는 묘음妙音이다. 그 묘음에 나를 비롯한 산 사람과 돌아가신 분 등 누군들 제도 되지 못할까 싶다.

간혹 학인 스님들이 의문을 가진다. 내용을 잘 모르고 독송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어느 경전도 마찬가지겠지만 독송의 묘미는 합송이다. 너무 느리면 중간에 망상이 들어오고 너무 빠르면 촉급한 마음이 일어난다. 대중이 많을 때는 특히 그 중간을 잘 택해야 한다. 나 또한 학인 시절에는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송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어느 강백 스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한양에 유명한 거지가 있었다. 중국의 한 변방으로 가서 조선의 세자 노릇을 하였다. 이 거지가 자신이 거지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음식 타박이었다. 매일 좋은 음식을 대접해도 음식 맛이 없다고 투덜대니 고을 군수도 난감해하였다. 그때 조선의 사절단이 지나가며 그 고을에 머물게 되어 자초지종을 들었다. 조선 사신이 거지를 보니 한양의 유명한 거지였다. 그의 목숨을 살려야 하기에 군수에게 음식 타박을 하면 이 말을 하라고 일러주고는 떠나갔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음식을 타박하기에 군수가 사신이 가르쳐 준 한마디를 했더니 거지가 놀라 바로 그 고을을 떠났다.

조선의 사신이 남기고 간 말은 ‘거지 주제에’ 라는 것이었다. 중국 사람이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알려 준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조선의 거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혼비백산하고 떠나갈 수밖에. 그렇다. 우리가 뜻을 알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자성청정심에 다 계합되고 있으며,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체 유주 무주 영가 분들 또한 알아듣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금강경 독송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功도 있다. 바로 삼매의 증장增長이요, 알아차림의 밀밀密密이다. 합송을 하다가 일으킨 한 생각에 잠시라도 끌려가면 독송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 ‘내가 망상하고 있네. 끊어야지’ 하는 인위적인 생각 없이 독송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돌아오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건 알아차림이 밀밀하다는 정진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관止觀수행의 최적이 합송의 공덕이요 묘미이다.

이뿐이라. 경전에서는 수지독송 해설 서사의 오종공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해 놓았다. 특히 수지하고 해설하는 공덕에 대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구계만이라도 수지하고 다른 이를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도 수승하다.”라고 설하고 있다. 수受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지持는 뜻을 알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승에게 배워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그때뿐’ 이라면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독송을 일심一心으로 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외워진다. 외우면 익게 되고 익어야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불자들이여, 운문사 새벽예불에 참여하여 도량을 청정하게 채우는 대중들의 독송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건 어떨까? 나아가 다음해부터는 운문사 금강경 독송 기도를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각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기신론』과 선종의 사상적 관계 ①

- 『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을 통해 본
선종의 공적지심空寂之心

현건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기신론』의 형성 및 개요概要
- III. 『기신론』의 핵심 이론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
- IV. 『기신론』의 이론과 선종수행론
 1. 『기신론』의 진심본체眞心本體와
선종의 자성청정自性淸淨
 2. 『기신론』의 망심론妄心論과
선종의 외경外境
 3. 『기신론』과 선종의 수행론

I. 들어가는 말

『기신론』의 사상은 선종에 광범위하고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 사상적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일심이문一心二門에서 본심(眞心: 본질론)론의 관점에서 보면, 선종은 비교적 여러 방면에서 심진여문心眞如門의 영향을 받았으며, 진심본체眞心本體는 일체를 초월한다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진심은 다른 말로 자성청정으로 일체의 염정垢染을 멀리 여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일심이문一心二門가운데 망심(妄心: 현상론)의 관점에서 보면, 일체의 분별망상근원은 모두 자심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망령되어 무상한 현상에 대해서 정식(情識: 망식)을 통해서 끊임없는 망집을 일으키는 것으로, 즉 무상한 제법현상을 영원하다고 집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행(開悟: 수행의 과정)의 관점에서 무념無念, 무아無我,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제시했다. 네 번째는 수증(修證: 혹은 경계)론의 관점에서, 시각始覺과 본각本覺의 합일을 통해서, 심성心性은 마치 거울과 같이 원명圓明해서, 진심에 회귀한 상태로서 일체의 분별시비 및 상대적인 경계를 초월한 상태를 표현했다. 즉 일심의 상태로 회귀한 경계가 바로 선종에서 자주 거론되는 내외가 공적인 상태인 공적지심空寂之心을 가리킨다.

주제어: 기신론, 선종, 여래장연기, 자성청정, 일심이문, 심진여문, 심생멸문.

II. 『기신론』의 형성 및 개요概要

『기신론』의 전체적인 명칭은 『大乘起信論』이

다. 인도의 마명보살이 찬술을 했으며, 남조시기 양대진제梁代眞諦가 번역을 했다. 이 책의 중요한 요지는 여래장연기론如來藏緣起論을 천명한 것이다. 이론과 실천방면의 각도에서 볼 때, 대승불교의 마음[心]에 관한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구성된, 대승불교의 총괄적인 이론에 대한 논서이다. 『종경록』에서 보면, “또한 조사 마명보살이 널리 경을 해석해서 논을 지었으며, 말후에 오직 한 권의 약론을 지었는데, 이름이 『大乘起信論』이다. 대승으로 대승 신근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서 심진여心眞如와 심생멸문心生滅門을 세웠다. 총론하면 일심이며 달리 체용을 열었다.”¹⁾고 했으며, 또 “이론을 요지하면, 전체적으로 제부諸部の 광문廣文을 섭했고, 원源[근원]으로써 류流를 섭했으니, 어찌 다하지 아니함이 있으리오.”²⁾라고 했다. 이 뜻은 마명보살이 전체적인 경전을 섭렵해서 간략하게 요지를 정리했다는 의미이다.

『기신론』에서 여래장연기론如來藏緣起論을 찬석하는 중요한 핵심적 이론으로, 즉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이다. 일심一心은 중생심을 가리키며, 곧 인성에 본래 갖추고 있는 여래장자성청정심如來藏自性清淨心이다. 이 일심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하나는 청정무루清淨無漏종자인 선성善性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염오유루染汙有漏종자인 악성惡性이 있다. 즉 마음은 크게 대략적으로 두 가지 마음[心]이 공존하는데, 선심(善心·진심)과 악심(惡心·망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일심을 열면 두 개의 문[一心開二門]이 있는데,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다. 심진여문은 불생불멸하는 중생심성의 본체를 말하며, 일체현상 및 명상개념을 이미 멀리 여원 상태로서, 필경에 평등해서 항상 불변하는 것을 말한다. 심생멸문은 중생의 심성인 감정(감성) 및 심리 변화 등 모든 현상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리켜서 곧 진여연기眞如緣起라고 칭한다. 또다시 생멸문生滅門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유전문流轉門이고; 다른 하나는 환멸문還滅門이다. 유전문流轉門에서 생멸과 불생불멸의 화합체인 아뢰야식阿賴耶識이 열리면서, 동시에 삼세三細, 육추六麤, 오의五意³⁾, 육염六染⁴⁾이 생기해서 미계迷界를 유전하는 것이다. 환멸문還滅門은 미계迷界로부터 십신十信, 십주十住 등의 계급점차를 의지해서, 열반 혹은 여래장자성청정심에 회귀하는 것이다.

이론바 삼대三大는 곧 체體, 상相, 용用을 가리킨다. 즉 체대體大는 중생심체衆生心體가 공해서 본래 망함이 없고, 진심은 항상 불변하며 늘 정법淨法을 만족했다. 상대相大는 무량무진한 여래공덕성

1) 『宗鏡錄』권39, (T48, 645a). “亦如祖師馬鳴菩薩。廣釋經造論。末後唯製一卷略論。名大乘起信論云。有摩訶衍。能起大乘信根。立心眞如心生滅二門。總論一心。別開體用。”

2) 『宗鏡錄』권39, (T48, 645a27). “以此一論之要義。總攝諸部之廣文。以源攝流。有何不盡。”

3) 『丁福保佛學大詞典』, 전자판, 즉 “業識, 轉識, 現識, 智識, 相續識을 가리킨다.”

4) 『佛學大詞典』, 전자판, “①執相應染, 我執之煩惱與心王相應而起。執著外境以染淨心。②不斷相應染, 於苦樂等境上, 法執之煩惱與心王相應而起。相續不斷, 以染淨心。③分別智相應染, 能分別世間。出世間諸法之智, 與心王相應而染淨心。④現色不相應染, 依根本無明而薰動淨心, 現境界之相, 不與心王。心所相應。⑤能見心不相應染, 由根本無明薰放。而使淨心有能見之相, 不與心王。心所相應。⑥根本業不相應染, 由根本無明力故。而心體始動。動而成業, 亦不與心王。心所相應。”

如來功德性を 함장했고; 용대用大는 능히 무진無盡한 공덕本성功德本性을 발휘해서, 일체세간과 출세간의 선인과善因果를 나타낸다. 사신四信은 진여와 불·법·승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다. 오행(五行:五度)은 보시·지계·인욕·정진·지관을 돈독하게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III. 『기신론』의 핵심이론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

『기신론』의 여래장연기如來藏緣起는 또 진여연기眞如緣起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미평등한 진여는 무시무종으로부터 부증불감의 실체가 된다. 염정染淨의 연緣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현상법을 낸다. 그 실체에는 두 가지 뜻을 함장하고 있다. 곧 진여문眞如門(淨)과 생멸문(染)이다. 진여문인 연고로 일미평등一味平等체가 되며; 정연淨緣으로 인해서 사성(四聖: 불, 보살, 성문, 연각)을 내고; 생멸문인 연고로 염연染緣으로 인해서 육도六道를 나타낸다. 이것에 삼법三法이 있는데, 진여의 체體, 생멸의 상相, 인연의 용用이 있다. 진여체는 인因이 되고, 인연의 용은 연緣이 되고, 생멸의 상으로 생生을 말미암는다. 그 생멸의 과果는 곧 현행現行의 아뢰야식이다. 따라서 아뢰야식은 여래장을 인해서 생生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변하는 심의 본성이 곧 여래장자성淸淨심이기 때문이다. 일체제법은 중생들의 허망심으로 인해서 천차만별의 형태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허망부실하다. 만약에 망념을 여의면 일체경계의 상相도 없다는 것이다. 일체법 본체의 각도에서 보면, 언설·명자·사려를 여의었으며 평등무이해서 영원불변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신론』에서 언어와 사

유에 대한 의의義意를 파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 일체언어라는 것은 가명으로 실체가 없다는 것이며, 다만 망념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으로 뿌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진여라는 것도 또한 상이 없다. 언설의 정점은 곧 말을 인해서 말을 보내는 것으로…, 일체법은 불가설 불가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이름이 진여가 된다.”⁵⁾고 했다.

한편 여래장심如來藏心은 『기신론』에서 모든 개념(一心, 二門, 三大, 四信, 五度)을 총괄하는 핵심 사상이기도 하다. 여래장심에서 나누어지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은, 여래장심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진여문心眞如門을 체성體性의 각도에서 보면, 곧 비염비정非染非淨, 비생비멸非生非滅, 부동부정不動不靜한 일미 평등체이다. 심생멸문心生滅門은 여래장심에서 제2의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심생멸문을 상용相用의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훈습熏習을 따라서 전변轉變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모든 염정染淨을 나타낸다. 비록 염정染淨을 이루지만 성性は 항상 부동하는 등이다(不變). 다시 말해서, 진여眞如는 생멸의 체가 되고, 생멸生滅은 진여의 용이 된다. 『기신론』에서 진여를 정의하기를: “심진여라는 것은……이른바 심성은 불생불멸이지만, 일체제법은 오직 망념을 의지해서 차별이 있다. 만약에 심염을 여의면, 곧 일체경계의 상이 없어진다. 이런 연고로 일체법은 종본 이래로, 언설상을 여의었고, 문자상을 여의었고, 심연상을 여의었고, 필경에 평등해서 변이가 없어서 파괴할 수 없다. 오직 일심이며 고로 진여라고 이름한다.”⁶⁾고 했다.

『종경록』에서도 “또한 이르대 청정본각은, 무

기무생無起無生하며 자체가 부동해서, 염오가 생사가 되지 않고, 청정한 것이 열반이 되지 않으며, 스스로 청정하다.”라고 했다.⁷⁾ 또한 『단경』에서도 “깨닫지 못한 즉 불佛이 중생衆生이고, 일념一念을 깨달을 때 중생이 부처이다. 고로 알라, 만법이 다 자심에 있다. 어떤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진여본성을 본다.”⁸⁾고 했다. 또 이어서 『단경』에서 말하기를 “선지식아! 내가 홍인화상처에서, 한번 듣고 언하에, 물론 진여본성을 보았다.”⁹⁾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모두 진여본성인 여래장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들이다.

IV. 『기신론』의 이론과 선종수행론

1. 『기신론』의 진심본체眞心本體와 선종의 자성청정自性清淨

선종이 『기신론』에서 영향을 받은 본심론은 일체를 초월한 “진심본체眞心本體”이자 “심진여心眞如”에서 진심 자체의 초월성인 “여래장”관념을 강조한 것이다. 선종에서는 진심본체를 자성청정심自性清淨心으로 묘사했으며, 염오染汚를 멀리 여의 상태라고 한다. 이 자성청정심은 선종 본심론의 기본적인 관념이다. 『기신론』에서 모든 사람은 불성

여래장[자성청정심]을 구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증불감, 청량불변淸涼不變하는 “진여자체眞如自體”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진여자체는 선종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심이라는 것이다. 자성청정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본래청정本來淸淨이고; 다른 하나는 이구청정離垢淸淨이다. 부연하자면, 즉 『기신론』에서 말하는 본각本覺[本來淸淨]과 시각始覺[離垢淸淨]의 다른 표현이다. 즉 중생의 진여심체는 본래청정해서 때가 없기 때문에 본래청정이 되며, 본래 청정심체는 일체 번뇌 및 염오를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이구청정이라는 것이다. 『기신론』의 심생멸문心生滅門 관점에 의하면, 만법은 모두 허망한 심념心念의 표현이라고 한다. 『인천안목人天眼目』에서 말하는 “만약에 망념을 여의면, 곧 일체의 경계상이 없고, 오직 하나의 진심뿐이다.”¹⁰⁾라고 하는 관점과도 일치한다.

(다음 호에 계속)

5) 『大乘起信論』권1, (T32, 0576a03). “言眞如者, 亦無有相, 謂言說之極因言遣言, 此眞如體無有可遣……當知一切法不可說, 不可念故, 名爲眞如.”

6) 『大乘起信論』권1, (T32, 576a). “心眞如者……所謂心性不生不滅, 一切諸法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心念, 則無一切境界之相. 是故一切法從本已來,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 唯是一心. 故名眞如.”

7) 『宗鏡錄』권39, (T48, 430a). “亦云淸淨本覺, 以無起無生, 自體不動, 不爲生死所染, 不爲涅槃所淨, 自爲淸淨.”

8) 『六祖大師法寶壇經』1권, (T48, p351a). “不悟卽佛是衆生, 一念悟時衆生是佛, 故知萬法盡在自心, 何不從自心中, 頓見眞如本性.”

9) 『六祖大師法寶壇經』1권, (T48, 351a). “善知識! 我於忍和尚處, 一聞言下便悟, 頓見眞如本性.”

10) 『人天眼目』권5, (T48, 326a). “若離妄念, 則無一切境界之相, 惟一眞心矣.”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체계의 비교와 현대적 적용 ②

공림 / 대교과(4학년)

목 차

I. 서론

II. 사마타 ·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비교

1. 도묘로 보는 『능엄경』의 25원통
2. 『서장』을 중심으로 본 간화선 수행
3.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유사성과 차이점
4. 현대 사회에서의 활용 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2. 『서장』을 중심으로 본 간화선 수행

앞에서 25원통을 통하여 사마타 · 위빠사나의 집중과 관찰 수행으로 본질을 통찰하는 예를 보았다. 반면, 간화선看話禪은 화두話頭에 대한 철저한 의정疑情을 통해, 수행자가 언어적 사유를 넘어 존재의 본질을 직면하도록 이끄는 수행법이다. 이는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라, 의심 그 자체를 수행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독특한 방식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는 간화선의 본질을 화두에 대한 절대적 몰입으로 규정한다. 선사는 “저한 글자가 곧 생사심을 끊는 칼날이다”라고 하여, 화두는 단순한 언어적 물음이 아니라 생사심을 끊는 도구임을 강조한다.¹⁾ 또한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단지 하나의 의심일 뿐이다. 화두 위

에서 의심을 타파하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화두 참구의 핵심 원리를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다.²⁾

특히 『서장』 제25권에서 선사는 “발 밑에서부터 참구하라[從脚下參]”고 강조하는데, 이는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곧장 실천하라는 뜻이다. 단순히 추상적 사유나 텍스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존재 위치에서 바로 의정을 일으켜 수행을 전개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선사는 반복해서 “화두는 의근意根 아래를 향해서 사랑복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 이처럼 간화선에서 의정은 언어적 이해나 지적 사유를 넘어서는 영역이며, 화두를 통해 ‘모를 수밖에 없음’을 직면하는 수행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³⁾

요컨대, 『서장』은 간화선 수행의 실천적 지침서로서, 화두는 단순한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뿌리를 직면하고 생사의 문제를 일거에 타파하는 도구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 수행은 일상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자 수행인 것을 강조한다. 수행은 단순한 관념적 사고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점에서 25원통과 간화선의 두 수행법은 유사한 실천적 지향성을 가진다.

3.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유사성과 차이점

불교 수행 전통에서 사마타 · 위빠사나와 간화선은 수행 방법과 철학적 배경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지만, 그 본질적 목적과 구조적 특징에서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다. 두 수행법은 각기 다른 역사적 ·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했지만, 모두 집중(定), 실천(行), 지속성(恒常)이라는 수행의 핵심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먼저, 두 수행법 모두 집중을 통한 수행이라는 공통된 구조를 지닌다.

사마타는 6근 · 6경 · 6식 · 7대⁴⁾ 등 반연하는 경계(緣境)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산란을 멈추고 고요함을 이루는 수행이다. 위빠사나는 이러한 집중을 바탕으로 대상의 무상(無常), 고독, 무아(無我)를 관찰하여 본질을 통찰하는 과정이다. 이에 비해 간화선은 특정한 화두(話頭)를 중심으로 절대적 의정(疑情)을 일으켜 이를 지속적으로 갈무리함으로써, 언어와 사유를 초월한 직관에 이르게 하는 수행이다. 이처럼 수행의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대상으로 의식을 집중하여 전개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둘째, 두 수행법은 철저히 실천 중심적이다.

『농암경』에서 제시한 25명의 제자가 저마다 다른 인연처(因緣處)를 관문으로 삼아 본성을 증득한 사례는 이론적 사유가 아닌 직접적 실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간화선 또한 마찬가지로, 대혜종고는 『서장』에서 화두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나 사유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몸과 마음으로 화두를 밀고 나아가는 실천적 참구만이 진정한 수행임을 강조한다.

셋째, 두 수행법 모두 일상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수행임을 명확히 한다.

사마타 · 위빠사나는 정해진 좌선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 모든 활동에서 적용 가능

1) 대혜종고(大慧宗杲), 『서장(書狀)』 제26권, “這一字子 便是箇破生死疑心底刀子也.”

2) 같은 책, 제28권, “千疑萬疑 只是一疑. 話頭上疑破 則千疑萬疑一時破.”

3) 같은 책, 제26권,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4) 6근(六根)은 눈(眼根), 귀(耳根), 코(鼻根), 혀(舌根), 몸(身根), 뜻(意根)으로 이루어진 여섯 감각 기관이며, 6경(六境)은 이에 대응하는 인식 대상인 색(色塵), 성(聲塵), 향(香塵), 미(味塵), 촉(觸塵), 법(法塵)이다. 6식(六識)은 근(根)과 경(境)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인식 작용으로, 안식(眼識)부터 의식(意識)까지 여섯 가지이다. 이들은 합쳐서 18계(十八界)를 구성한다. 7대(七大)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견(見), 식(識)으로, 세계를 이루는 물 질 적 淵 근원을 설명한다. 『농암경』 제5권에서는 이를 수행자가 본성을 증득하는 관문으로 제시한다.

한 수행법으로 발전해왔다. 25원통에 나타난 수행자들 역시 일상적 삶 속에서 자신의 몸을 중심으로 수행을 이어간다. 간화선 또한 “발 밑에서부터 참구하라(從脚下參)”는 가르침처럼, 수행자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고 나아가야 한다. 수행은 결코 일상과 분리되지 않으며, 이는 두 수행법이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그대로 수행인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수행법은 다음과 같은 본질적 차이도 지닌다.

첫째, 집중의 방식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사마타는 특정 대상에 마음을 고정하여 점진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위빠사나는 이러한 고요함을 바탕으로 대상의 변화와 무상성을 관찰하는 통찰수행이다. 반면 간화선은 화두에 대한 절대적 의문, 즉 “도무지 알 수 없음”이라는 의심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서 집중은 지성적 사유나 분석이 아니라, 오직 의정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번뇌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번뇌를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제거하거나 관찰을 통해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반해 간화선은 번뇌 자체를 수행의 동력으로 삼는다. 즉, 번뇌와 의심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화두를 통해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여 본질을 직면하게 하는 수행 현장인 것이다.

셋째, 수행 체계와 적용 방식이 다르다.

사마타·위빠사나는 명확한 단계적 수행 체계로 사마타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후 위

빠사나로 전환하여 통찰을 얻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교학적으로도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특징을 가진다. 반면 간화선은 이러한 체계적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행자가 스스로 화두에 몰입하여 의심이 극점에 달하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직관적 돌파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간화선은 훨씬 더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수행 방식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사마타·위빠사나와 간화선은 집중의 대상, 수행의 방식, 적용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수행자의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고, 본지풍광을 직면하여 생사심을 타파하게 만드는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 이는 불교 수행의 풍부한 다양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통합될 가능성 또한 가진다.⁵⁾

4. 현대 사회에서의 활용 방안

1) 정신 건강과 인지적 회복력 향상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은 현대 심리치료 및 명상 기반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⁶⁾ 사마타는 집중력을 강화하고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위빠사나는 자기 성찰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명상의 심리적 효과가 입증되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⁷⁾

또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주의 집중력의 저하와 정보 과잉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마타 수행은 주의력 회복에, 위빠사나는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력 증진에 기여한다. 간화선 수행 역

시 삶의 본질적 물음을 던지며 정신적 균형과 내적 회복력을 높이는 수행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⁸⁾

2) 창의성, 사고력, 자기 계발 촉진

간화선 수행은 기존의 인식 구조를 전복하는 화두 중심의 수행 방식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사고의 전환을 유도한다. 깊은 질문을 제기하고 의정疑情을 중심으로 수행을 지속하는 간화선은 직관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실제 예술가나 연구자 등 고차원적 사고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그 수행방식이 주목되고 있다.⁹⁾

또한 교육 영역에서도 사마타·위빠사나 수행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효과를 높이고, 간화선의 화두 참구는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성찰을 촉진하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¹⁰⁾ 명상 기반 교육은 학습 능력 향상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자아 성장의 통합적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조직과 사회적 실천에서의 적용

사마타, 위빠사나, 간화선 수행은 개인의 정

신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조직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마타 명상은 직무 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이며, 위빠사나는 정서적 리더십과 자기 성찰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한다.¹¹⁾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서 간화선의 화두 수행은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 전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내 기업에서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교육이나 창의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수행이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전체의 문화적 혁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II. 결론

사마타·위빠사나와 간화선은 각각의 불교 전통에서 확립된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수행의 대상과 방식, 접근 철학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사마타는 마음의 집중과 고요함을, 위빠사나

5) Inamaluwe Nandarata, 『위파사나와 간화선의 수행체계 비교 연구 - 스리랑카와 한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 김정호, 「불교 명상의 심리학적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8권 2호, 2014.

7) 김선희 외, 「마음챙김 기반 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2권 1호, 2011.

8) 전재강, 『서장: 대혜종고 선사 어록』,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9) 윤종갑, 「간화선 수행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불교학보』 제60집, 2015.

10) 1.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 운영 사례」, 2021,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적용한 사례로,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입증됨.

2. 이정은, 「기업 내 명상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 분석」, 『인간중심경영연구』 제22권 제1호, 2020, 125-142쪽. 삼성, LG 등 주요 기업 인재개발원에서 화두 기반 창의성 훈련이 활용된 사례를 포함.

11) 이정은, 「기업 내 명상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 분석」, 『인간중심경영연구』 제22권 1호, 2020.

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중시하며, 『능엄경』 제5권의 25원통 가르침은 이 두 수행법이 불교적 깨달음에 도달하는 실질적 도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간화선은 하나의 화두를 중심으로 절실한 의정疑情을 간직한 채 수행자가 존재의 근원을 실존적으로 직면하도록 유도하며, 언어와 사유를 넘는 직관적 자각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행법은 하나의 대상에 몰입한다는 집중 수행의 구조, 실천 중심의 수행 철학, 그리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수행 원리를 공유한다. 이러한 점은 사마타·위빠사나와 간화선이

수행자의 내면을 정화하고 본성을 실현하게 한다는 궁극적 목표에서 서로 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고는 이러한 수행법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정신 건강 증진, 창의성 개발, 조직문화 혁신 등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거론해 보았다. 따라서 불교 수행법은 단지 전통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유용하게 확장되어 가야 할 것이다. 향후 수행 이론과 실천 체계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연구가 이어진다면, 불교 명상은 시대를 초월한 치유와 자각의 길로서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대혜종교大慧宗杲, 『서장書狀』, 전재강 역주,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 『능엄경楞嚴經』, 반라밀제 한역, 불광출판사, 2008.
- Inamaluwe Nandaratanana, 『위파싸나와 간화선의 수행체계 비교 연구 - 스리랑카와 한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오철우, 『사마타·위빠사나와 간화선의 삼매 수행체계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정호, 『불교 명상의 심리학적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제18권 2호, 2014, pp. 123-145.
- 김선희 외, 『마음챙김 기반 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2권 1호, 2011, pp. 345-362.
- 송혜경, 『교육 명상의 효과와 학교 적용 가능성 연구』, 『명상교육연구』 제3권, 2018, pp. 67-94.
- 윤종갑, 『간화선 수행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불교학보』 제60집, 2015, pp. 201-230.
- 이정은, 『기업 내 명상 프로그램의 운영과 효과 분석』, 『인간중심경영연구』 제22권 1호, 2020, pp. 55-80.

염화미소

재하 / 사집과(2학년)



“Connecting Dots”, 즉사이진(卽事而眞), 그리고 운문사

김태균

인류의 운명은 농업혁명, 기술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을 거치며 여러 번 변화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이룩한 정보통신 혁명은 우리의 일상과 세상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며 가장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적인 통찰력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비롯된 많은 명언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2005년 스탠포드대학교 졸업 연설의 핵심 주제였던 “Connecting Dots(점들을 연결하라)”는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그 순간에는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의 점처럼 연결되어 기적 같은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배우며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Connecting Dots’ 처럼 이어진 제 삶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천 년의 숨결을 간직한 고찰, 경상북도 청도군의 운문사(雲門寺)는 저에게 가슴 깊이 새겨진 인연의 장소입니다. 어느 겨울, 서울에서 출발해 새벽 두 시경 도착한 운문사는 찬 바람 속에서도 달빛이 길을 밝혀 주었고, 저는 그 빛을 따라 사리암을 향했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내려와 운문사 대웅전에 도착하니 마침 예불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인 스님들이 고요한 법당에 앉아 계셨고, 이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대중 스님들의 예불 소리는 어떤 악기 반주도 없었지만, 제가 들었던 그 어떤 교향곡보다 깊고 아름다운 천상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이 흘렀고, 함께한 아내가 눈치챈까 조심스레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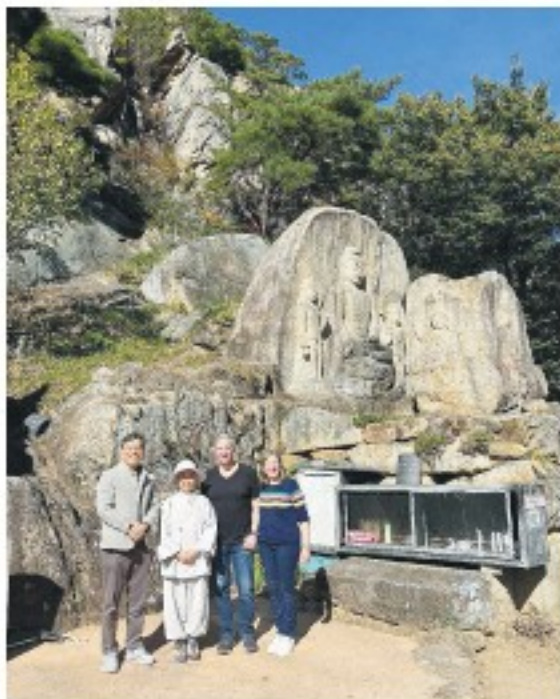


김태균

티케이정형외과 대표원장
재단법인 건강백년 이사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임상전임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국제학술지 CORR 부편집인

개를 숙이고 도량을 돌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날 운문사의 중심에는 한국 비구니 교육의 요람인 '운문사승가대학'이 있습니다. 1959년 설립 이래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길러내며 엄격한 교육과정을 통해 자비의 길을 걷는 수행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운문사가 이처럼 조화로운 도량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명성 스님의 원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신 스님은 도량을 돌보고 정제된 수행 풍토를 확립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스님께서 늘 강조하신 '즉사이진(即事而眞:무슨 일이든 그 자리에서 곧



바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의 가르침은 수행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즉사이진'의 가르침은 저의 삶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명성 스님과 저의 인연은 예진 스님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100여 분의 스님들이 모여 아주 특별한 선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식에 작은 도움을 중흥사 예진 스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진 스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의 인연 속에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2023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4회 아름다운 노년 심포지엄에서 워싱턴대학의 Leopold 교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진 스님께서 경주 답사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2009년 국보로 지정된 칠불암 마애불상군을 참배하는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진 스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반갑고 따뜻하게 인사하시던 모습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진 스님의 범명 '예진禮盡'은 '예를 다하여 남김이 없다'는 뜻으로, 화엄경에서 유래했으며 다름 아닌 명성 노스님께서 직접 지어 주신 것입니다. 늘 효심과 불심을 강조하시는 예진 스님의 은사 도광 스님, 그리고 그 은사이신 명성 스님의 가르침이 예진 스님의 모든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명성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즉사이진'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예진 스님을 통해 이어지고, 그 인연이 다시 저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화엄경의 '중중무진법계연기重重無盡法界緣起'와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기緣起하여 무한히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저는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오체투지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걸어가고자 다짐할 뿐입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의 큰 별이신 명성 스님. 그분이 주석하고 계신 운문사의 바람은 오늘도 조용히 속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

본래 구족하고 본래 청정한 그 자리

- 덕민 스님을 뵈고 -

삼우 / 대교과(4학년)



한국불교의 전통 강맥講脈을 계승한 당대의 대강백이신 덕민 스님을 뵈기 위해 동해바다가 있는 경주 기림사로 향했다. 스님께서는 세속적 학문을 배우지 않고 독학으로 대강백의 경지에 오르셨다. 선시와 한시, 한학에도 정통하신 스님께서는 강맥을 전수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신다. 산문을 들어서니 담벼락 밑에 편 모란이 우리를 반긴다. 먼저 주지 스님께서 준비해 주신 차를 마시고 스님께서 머무시는 처소로 이동했다.

스님께서는 학인 수는 줄어드는 반면 출가 연령대는 높아지는 현실을 염려하시며 우리들의 세속 나이를 묻기도 하셨다. 예전에 운문사에서 특강하셨던 인연을 말씀하시며, 여러 어른 스님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 “스님께서는 세속 학문이 아닌 강원의 전통적인 길을 통해 대강백이 되셨습니다. 최근 학인 수가 줄고 출가 연령이 높아지는 등 전통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저희 학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길을 가야 하며, 스님께서 걸어오신 전통적인 공부 방식이 지금 왜 중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3살에 절에 와 범어사에서 출가하고 올곧게 부처님 경전만 강의하고 살았어요. 「금강경오가해」 강의도 많이 했지만, 학위를 따는 학교 공부와는 거리가 멀지요. 불국사에서 23년 강의하고 고봉 스님, 우룡 스님, 그리고 나에게로 3대째 내려오는 강맥을 이어왔는데, 오는 5월에는 전강傳講해 주고 강의도 그만 쉬려고 해요.

전통 강원은 강원대로 치문, 서장, 선요, 도서, 금강경, 화엄경 등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조사 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재가 600~700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한 교재가 600~700년씩 대대로 이

어지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답니다. 중국 당송 때부터 내려오는 선사들의 어록과 화두를 모은 '선문염송'이라는 책이 있는데, 강원에서 10년을 공부해야 그 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제가 어렵다고 없애면 종가宗家の 뿌리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오면 첫째 염불을 익히고, 경전을 읽는 소리가 염불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머리 깎고 절에 와서는 목에 피가 나도록 경전 읽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요즘은 학인도 없고 늦게 출가하니 속세의 습관이 몸에 익어서, 절에 와도 1년은 잘 하다가 3-4년 되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스님의 답변은 전통적인 공부법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수행을 새기는 과정임을 일깨워 주었다. 스님의 말씀에 이어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궁금해졌다.

● “스님 말씀처럼 목에 피가 나도록 경전을 읽으며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저희가 그 공부를 통해 깨쳐야 할 진리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지요?”

“앞으로 중국의 선禪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세계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중국의 선 문화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봐요. 제가 미국 사람들을 보니 단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행복 추구를 참선이나 간화선 쪽으로 돌린다면 중국의 선 문화가 살아나고 미국 사회에 불교 불이 일어날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줄이고 이 세계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생이지지生而知之'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생이지지'는 '태어날 때부터 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이처럼 아름답고 고귀하며 청정한 '생이지지'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생이지지'라는 말로 높여서 알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도 “어찌 내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알 수 있었겠습니까(何期自性 本自清淨), 내 마음자리가 본래 완전하고(本自具足) 오염되지 않았음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며 통곡하시다 깨달아 오조 스님으로부터 의발





衣鉢을 인가받았어요. 부처님께서 8년간 법화경을 설하시고 하늘에서 청황적백 꽃비가 내릴 때 연꽃을 딱 들어 보이니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1,200 대중은 이게 무슨 소식인지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표현한 건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실상은 이처럼 오묘하고 불가사의해서, 이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스승 노릇,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본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불교는 일초직입여래지—超直入如來地라! 한 생각 딱 돌이키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한 생각 차이입니다. 그것이 '화엄華嚴의 세계', '선禪의 세계'입니다. 승려가 되는 것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선문염송에서는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말씀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언어로 설명하는 불교 특유의 방식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은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목에 피가 나도록 금강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지런히 경전 공부를 해야 돼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생명의 실상'이라는 말씀에, 그 거대한 진리가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 "스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갖추어진 생명의 실상'이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불교의 진리가 이 땅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시오."

"신라 시대 국보 중에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는 피리가 있어요. 신라 시대에 대나무를 쪼개어 피리를 만들어, 그 곡조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는 만파식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내면의 번뇌 망상을 지워버려라' 라는 가르침이었고, 그 만파식적의 곡조가 바로 '대방'

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진리입니다. '대방광불大方廣佛'은 생명의 본질인 체體를 체상용體相用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세상을 장엄하게 꾸미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그 진리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그 이름 그대로가 진리인 셈입니다. 만파식적에 대방광불화엄경의 음악을 담은 거예요. 신라를 쳐들어오던 일본이 이 피리 곡조를 듣고 생명 철학에 담긴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제자 심상 스님이 일본으로 건너가 화엄 초조初祖가 돼요. 이런 세계적인 불국토 정신문화가 감포 같은 조그마한 지명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통 강원에서 전해오는 경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보여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강원의 교육입니다. 우리는 서장도 다 외우고, 치문도 다 외우지, 당시唐詩, 송시宋詩 몇백 수를 다 외우지, 밥 먹고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아상·인상·중생상이 버글버글합니다."

'아상이 버글버글하다'는 서릿발 같은 지적에, 평소 안일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비쳤다.

- "공부에 매진하기보다 생활에 치우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에는 투쟁되고鬪諍惱苦, 즉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논쟁하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인을 받아들이고 모시며 공부할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말로만 와서 묻다가 조금 느끼는 게 있어도, 일주문을 나서기도 전에 다 잊어버려요. 먹는 것에, 보는 것에, 듣는 소리에 꼬달리다가 다 잊어버리는 게 말법 시대의 문화예요. 불교는 눈으로, 소리로 찾는 게 아니예요. 바로 딱 앉아요. 딱 앉아버려서 느낌이 오면 그대로가 부처예요."

- "그게 잘 안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딱 그 느낌이 꽃혀야 돼요. 이 느낌을 어떻게 꽃히게 하나? 내 몸뚱이 잊어버려! 안이비설신의 잊어버려! 비워버려! 아공我空·범공法空, 다 비워버려! 일체개공一切皆空, 싹 비워버려! 중간에도 머물지 말고, 없는 데도 머물지 말고, 있는 데도 머물지 말고 비워버려! 비우고 또 비우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양 날개로 가볍게 날아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듯 내 마음이 그렇게 비워져요.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티끌 하나가 열 개로, 백 개로 쪼개져 없어지는 그런 미세한 과정도 느껴 봐야 돼요. 옛 선지식들은 떡살을 잡고 한 번 칠지언정, 두 마디 세 마디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몸뚱이에 집착하지만, 이 마음이 소중해요. 이 마음에는 죽고 사는 생사의 흔적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치열한 가르침 끝에 문득, 평생을 학인으로 살아오신 스님의 삶 자체가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 “스님, 평생 학인의 마음으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학인이예요.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올해로 여든두 살인데, 혼자 이렇게 삼매에 들어요.

그 자리는 수증修證이 없는 자리야. 본래 구축되어 물들지 않으니, 밑바닥까지 청정해진 자리지.
밑바닥 물이 청정하니 그 깨끗한 모래알이
물인지 고기인지, 고기인지 물인지,
저 새가 하늘을 날아가니 그렇게 존재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텅 비어있듯이
구름이 새인지, 새가 구름인지
하늘이 허공인지, 허공이 하늘인지.

이렇게 삼매에 들어앉아 있는 것을 부처님의 왕삼매王三昧라고 해요. 허공과 같이 되는 것, 최고의 깨달음의 삼매예요. 저 깨끗한 물속에서 물과 고기가 구분이 안 되는 그 맑고 청정한 상태를 부처님이 앉아 계신 왕삼매라고 해요. 이런 글귀의 맛을 알면 중노릇이 참 재미가 있는데…….”

공부해서 물으라, 그 속에 답이 있다

말씀이 끝날 무렵, 큰스님께서는 ‘글로 새기면서 실력을 갖추고 물어야지, 말로만 묻는 것은 분별 망상만 더 일으킬 뿐이다’ 라고 하시며 ‘다음에는 목에 피가 나도록 금강경오가해를 읽고, 공功을 쌓아서 오라’ 고 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스스로 치열하게 파고들라는 자비로운 독려이자 후학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셨다. 안일하게 지식을 구하려 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선재동자가 구법의 길에 나설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찾아뵙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디로 갈지 해매는 많은 초심자에게 그 길을 알려 주시고 조사님들의 한 소식을 전해 주신 큰스님께 감사한 마음이다. 나의 한 소식도 전할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

시절인연

해수 / 사미니과(1학년)

작은 반딧불들이 웅기종기 모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불빛을 피워 올립니다.

내 생을 돌고 돌아 어렵게 만난 지중하고도 소중한 인연
물에 비치는 밝은 달처럼 서로의 거울이 되고
서로의 수행에 선지식이 되며 함께 가는 동반자로

저마다 가슴에 새겨진 아름다운 향기로
맑고 향기롭게 피어오를 수 있기를
점점 깊어지는 수행의 힘으로 회향할 수 있기를

신화 1학년 해신

방편의 불교, 수행의 불교

- 대만 불교 연수를 다녀와서 -

선재 / 대교과(4학년)



불광산사 불학원 학인들과 기념촬영

화엄반은 지난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백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대만 불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총 7박 8일간 대만의 주요 사찰과 불교 기관들을 방문하며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인들의 전문과 재능을 넓히고, 특히 1949년 이후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대만 불교의 성공적인 현대화 및 사회 참여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불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습니다. 어렵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인만큼 저희는 단순한 일방적인 배움을 넘어, 양국 불교계가 활발하게 상호 교류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만들고자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효율적인 연수 코스를 만들기 위해 연수지 및 일정을 충분히 협의했고, 모든 참가자가 회계, 공문 작성, 기록, 사진 촬영, 기념품 준비 등 각자의 소임을 맡아 체계적으로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방문할 사찰에 대해서는 미리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대만 불교계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질문지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관련 포럼에도 참석했으며, 대만 불교계에 저희 운문사를 소개하기 위한 발표 자료와 영상도 미리 만들어 갔습니다. 아쉽게도 천제지변으로 자제공덕회는 방문하지 못했지만, 불광산사, 중대선사, 법고산사를 중심으로 현대 대만 불교의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이번 연수는 대만 불교의 전통과 현대적 특징을 아우르는 이론 학습과 실질적인 체험을 병행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상호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양국 불교계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1949년 국민당 정부의 대만 천도 이후, 중국 본토 고승들의 이주와 함께 시작된 대만 불교의 전통 복



법고산사

원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특히 '칠조규정' 제정을 통한 승풍 진작과 계율 실천 운동이 오늘날 대만 불교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자제정사, 불광산사, 중대선사, 법고산사 등 신흥 사대종문의 특징과 사회적 기여를 분석하며 대만 불교의 역동성을 생생하게 체감했습니다.

대만 불교에서 저희가 주목한 특별함은 크게 세 가지였고, 이는 한국 불교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첫째, 전통과 현대의 공존입니다. 자제공덕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방문하게 된 용산사는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이 혼합된 형태의 사찰이었고, 대륙의 대승불교 전통을 잇는 사찰 및 196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창건된 신흥 사대종문이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주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청정한 수행 공동체 지향입니다. 대만 불교는 계율을 중시하며 채식을 중심으로 하는 '소식素食'을 실천하는 불자가 많았습니다. 이는 불교도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승단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사찰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모습 역시 저희가 본받아야 할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광산사 새벽예불

셋째, 교육, 조직, 복지, 문화, 수행, 국제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불광산사와 법고산사는 대학 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으며, '선칠禪七' 같은 수행 프로그램은 출재가의 수행 풍토를 고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광산사의 활발한 해외 분원 운영은 대만 불교의 저력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연수 기간 동안 대만 불교의 포교 및 신도 조직 운영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중에게 친절하고 쉬운 방식으로 불교를 알리는 모습은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특히 교육 시스템과 '선칠' 수행 프로그램은 신앙을 넘어선 불교의 역할을 깨닫게 했습니다.



중대선사



영축산 무생도량 선방

이번 대만 연수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으로 꼽히는 것은 중대선사 37층 108m 높이에 위치한 묘음대 체험입니다. 해리포터의 9와 3/4승강장치 럽 외부인은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특수한 음향설계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증폭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내면을 성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도반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합송한 것은 안내해 주신 중대선사 지객 스님까지도 감동시킨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태평양 바다를 등지고 앉을 수 있게 설계된 영축산 선방에서 한 좌선 체험은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연수의 가장 큰 성과는 소임자 및 학인들과의 좌담회 및 간담회였습니다. 대만 불교계는 한국 불교에 대해 상당히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질의 시간보다 답변 시간

이 더 길어질 정도로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불교의 현황과 고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고, 이는 학인들의 통찰력을 향상시키고 한국 불교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희의 수행과 수행 생활을 돌아보고, 원력과 수행력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자비심을 키우고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만 연수는 참가자 모두가 만족했다고 평가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만 스님들께서는 가는 곳마다 환대해 주셨고, 강원 학인 신분으로, 단체로 가지 않았다면 일반 성지순례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것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자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우리가 정작 한국 불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면모가 느껴지는 거대한 규모의 대만 불교가 단기간에 이런 성과가 눈부시지만, 삼국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살아 있는 한국 불교의 저력도 못지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엄반은 대만 연수 직후 경주 남산으로 단오 산행을 다녀왔는데, 남산 전체가 탑이자 불상인 살아 있는 박물관, 진정한 불국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대만 불교와는 다를지라도 경주 남산은

신라 천 년의 정신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자연 범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척에 있어도 직접 가 보기 전까지는 막연히 짐작할 뿐,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만 연수 전에 삼보사찰 순례 등 우리 것에 대한 공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2, 3학년 때를 활용해 우리 불교에 대한 심도 깊은 연수 프로그램을 짜서 체계적으로 이수한다면 4학년 때 대만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불광산사 불학원 학인들과 간담회

또한, 이번 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학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불교 연수 프로그램 병행, 직접 체험 프로그램 및 좌담 시간 확대, 전문 통역 인력 배치 및 현지 인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만 불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광산사 학인과의 간담회 시간에 있었던 질의응답을 하나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불광산사 학인 스님이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AI가 발달하는 시대인데, AI를 통한 포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화엄반 해석 스님이

“AI의 언어 능력은 경전 번역에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언어를 뛰어 넘는 개인의 직접적인 수행이 더 중요합니다. AI는 불법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수행의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성운대사께서 말씀하신 ‘AI는 방편을 제공하지만, 수행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수행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만에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직접 체험의 기회가 더욱 많아져 학인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어른 스님 및 소임자 스님들과 백천문화재단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자체중간평가

당신의 심장을 움직이기 위하여

명주 / 사교과(3학년)



삼화 3학년 진정

출가하기 전, 나는 미술을 공부하며 '제2의 카미유 클로델'을 꿈꿨다. 그녀는 오귀스트 로댕의 연인이자, 동시에 로댕이 질투할 만큼의 재능을 지닌 천재 조각가였다. 생전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 치열했던 삶과 열정적인 작품들은 후대에 재조명되어 지금은 영향력 있는 여성 예술가로 기억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삶을 비극이라 말하지만, 나는 오히려 순수하고 불타는 영혼에 감명 받았고, 언젠가는 나도 나의 전부를 예술에 쏟아붓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었다.

그래서 출가 권유를 받았을 때마다 "나는 아직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며 거절하곤 했다. 확고한 방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나의 마음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리고 "출가인은 자유인이다."라는 두 문장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었다. 세속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의 삶, 그 길에서 진정한 예술가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큰 고민 없이 나는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삶에 들어섰다.

출가 후 3년 동안 운문사 강원에서 불법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술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행위였다는 사실이다. 나는 '잘' 그리고 '잘' 만들어내고 싶었다. 그 '잘'이라는 기준은 결국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삼법인三法印 -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 - 을 배운 수행자라면 마땅히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했지만, 나는 여전히 욕망 속을 헤매고 있었다. 수행자로서 청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과, 창작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망 사이에서 나는 오랫동안 혼란스럽고 괴로웠다. 예술은 과연 집착의 산물일 뿐일까? 아니면, 마음을 치유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또 다른 수행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품고 있던 어느 날, 문득 학생 시절 마주했던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 떠올랐다.

그는 거대한 캔버스에 오로지 색만을 채워 넣는 작업을 했다. 형태도 구체적 설명도 없지만, 그저 색의 경계선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잠잠해지고, 어떤 영원의 감각에 빠져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이유는 로스코가 단지 색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색으로 승화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는 관객과 자신의 감정이 만나는 지점을 작품 속에 만들고 싶어 했다. 특히 생

에 말기에 진행된 로스코 채플 프로젝트는 그의 예술적 정수가 담긴 공간이었다. 채플이라는 이름은 예배당을 의미하지만, 그 공간엔 특정 종교가 없다. 단지 모두를 위한 고요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실제 건물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시장에서 재현된 채플 공간에서 나는 분명히 그가 의도한 '침묵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벤치에 앉아 캔버스를 조용히 마주하면, 그 안에 깃든 감정과 고요가 마음 깊은 곳과 맞닿는 경험이 찾아왔다. 말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모호한 색깔들을 바라보는 동안 내 마음 어딘가의 생체기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울고, 명상하고,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받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나는 마크 로스코의 예술이 수행의 방편과 같다고 느꼈다. 그는 “상대의 심장을 움직이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자신의 슬픔과 타인의 슬픔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작품이며 거기에서 비로소 두 존재는 덜 슬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속적 성공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기 위한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을 떠올리며, 나는 《법성계》의 한 구절이 문득 생각났다.

법성원융무이상 法性圓融無二相
 제법부동본래적 諸法不動本來寂
 무명무상절일체 無名無相絕一切
 증지소지비여경 證智所知非餘境

법성은 두루하고 평등하여 둘이 아니고, 모든 존재는 본래 고요하며, 이름도 형상도 없이 일체의 분별을 넘어선 자리라는 뜻이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리. 마치 로스코의 그림처럼, 그것은 오직 체험으로서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설명이 전혀 없다면, 그 또한 공허한 이상에 그칠 수 있다. 이 뒤에는 이사명연무분별 理事冥然無分別 십불보현대인경 十佛普賢大人境이라는 구절이 이어진다. 진리와 현상이 분별되지 않으며, 그 조화 속에서 성인의 경지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로스코가 색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고자 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내 안의 불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일지도 모른다.

수행과 예술 사이에서 오래도록 고민해 왔던 나에게 이 깨달음은 큰 전환이었다. 법성계의 구절을 떠올리며, 갈피를 잡지 못했던 내 마음도 차츰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수행자는 먼저 자신을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예술은,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지속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 아니 '방편'이다. 이 방편이 나에게 길이 되어 준 것처럼,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의 수행이 더욱 깊어져 일체중생을 실어가는 반야용선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모두가 피안彼岸에 이르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

혜신 / 사미니과(1학년)



삼화_1학년 선일

새끼오리가 언제 첫 비상을 하게 될까요? 어미는 때가 되면 등지를 비웁니다. 먹이도 없고, 자라난 덩치로 서로 비좁은 새끼들은 결국 비상을 결심합니다. 날개를 펼치고 멋지게 뛰쳐오르지만, 이내 포물선을 그리며 오동통한 배를 바닥으로, 추락에 가까운 착지를 합니다. 몇은 충격으로 잠시 기절까지 합니다. 나무 아래 있던 어미는 어리둥절한 새끼들을 추슬러 안행해서 물가로 데려간답니다.

봄방학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반 스님들이 모두 떠나는 봄방학, 이제 치문이 운문사의 주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요. 등지에 홀로 남겨진 치문반, 기절해버릴 수도 없고 뭐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봄방학을 앞두고 전 비로전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12시 대중치러 청풍료를 나서면, 어리바리한 낮으로 삼성각 쪽이 아니라 불이문을 지나 종각으로 가던 지경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한 보살님이 반려견도 도량 내 입장이 가능한지 물었을 때

“아...스님께 여쭙 봐야 하는데…….”

라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답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치문반에게 방학 중 운문사 주인으로서 크고 작은 일과들을 해내도록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온 도량에 올리도록 몸과 마음을 열어 자비참기도를 드리고, 도량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모아 조왕불공을 올리고, 초파일엔 연등을 들고 온 도량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봄방학 동안 치문반이 받은 응원과 격려, 위로와 정책, 멀고 가까운 곳에서 보내 주신 공양물들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풀뽑기 울력입니다. 뒤돌아서면 새로 자라던 삼각동산의 고들빼기와 바랭이는 꿈에서도 독대했습니다. 고작 한 달이지만 금당에 애정이 생겨서 개학한 지금도 가끔은 아욱이-금당에 사는 고양이-인 척하고 들어가 있고 싶습니다. 푸정의 향기마저도 그림습니다.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공간과 친해진다는 것일까요? 공간을 쓸고 닦고 돌보고, 아침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바라보는 일 말입니다. 말끔히 정돈된 공간이 어떤 표정으로 웃는지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간의 주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 공간에 오는 손님들에게 가장 근사하고 다정한 환대를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운문사의 도량을 가꾸고 보살피 오신, 오랜 주인이셨던 어른 스님들과 상반 스님들이 치문반에게 보내 주신 환대는 ‘이보다 지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감동이었습니다. 저희도 봄방학 동안 운문사에 오신 손님들에게 이런 환대를 흉내라도 내드렸을까요? 매일 대종을 치면서, 마당을 쓸면서 ‘이 도량에 오고 가는 이들이 운문사의 가장 단정한 모습을 보고 가기를’ 하고 발원했습니다. 운문사의 스님들께서 치문반에게 해주셨듯이 말입니다.

이제는 비로전도, 종각도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운문사라는 공간과 조금은 가까워진 봄방학. 데면데면하지는 않지만, 어리숙함을 숨기기엔 또 갈 길이 멍니다.

새끼오리의 솜털이 방수깃으로 바뀌는 그 알맞은 속도를 제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도 스님들께 ‘주인다운 성숙한 환대’를 배운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덜 성급하고 더 친절하고 싶은 여름입니다. ☺

마음을 담는 공경의 길, 예배와 예불의 공덕

도선 / 대교과(4학년)

예불禮佛이란, 먼저 부처님의 지혜와 자
비로움에 깊이 머리 숙여 찬탄讚嘆하고,

스스로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성찰하며 참
회懺悔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 부처님께서 언제나 곁에서 자비로이 인
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청勸請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상의 모든 선한 인연에 수
희隨喜하는 기쁨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닦아온 선행의 공덕을 이웃과 온 생명에게 회향廻向하여,

모두가 함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삼화_4학년 해명

‘예배’란 고개를 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행위로, 줄여서 ‘예禮’ 또는 ‘배拜’라고도 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예배의 형식을 하下, 중中, 상上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손을 모아 허리를 굽히는 ‘읍揖’으로, 오늘날의 합장에 해당합니다. ‘중’은 무릎을 꿇고 절하는 ‘례啣’이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는 동작이 이에 속합니다. ‘상’은 ‘계수稽首’로, 머리를 땅에 닿도록 깊이 절하는 것으로, 이는 가장 귀한 머리를 가장 낮은 발에 대어 최고의 공경을 표현하는 예법입니다.

한국의 절에는 손을 모아서 들어 올리는 고두배叩頭拜 동작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를 연꽃이 피거나 부처님을 받드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동작의 정확한

명칭은 ‘접불족례接佛足禮’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대고 손으로 그 발을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깊은 존경과 헌신을 담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52장에서는 예배자禮拜者는 경야敬也요, 복야伏也니 공경眞性恭敬眞性하고 굴복무명屈伏無明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공경이며 굴복이고, 참된 성품을 공경하여 무명을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예불은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가장 깊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리나라 참된 감응을 받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보현보살의 열 가지 대원 중 첫 번째가 바로 예경제불禮敬諸佛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대승 보살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덕목입니다.

초기불교에서는 오늘날의 예불과 같은 별도의 의례가 없었지만, 오체투지나 탑을 도는 등 별도의 예경법이 있었으며, 대승불교에 이르러 부처님께 예배하는 관습이 정착되었습니다.

한국 사찰에서는 날씨에 관계 없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불에 열 가지 공덕이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업보차별경業報差別經』에 따르면, 부처님께 예배하면 다음과 같은 공덕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인 32상 80종호를 닮은 청정한 용모를 얻게 됩니다.

둘째, 말하는 이의 진실성이 높아져,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어디서든 마음에 평화를 유지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넷째, 부처님의 보호와 인도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 자연스러운 위엄과 성스러운 자세가 몸에 배어 거룩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섯째, 선한 마음이 주변에 선한 인연과 벗들을 끌어당깁니다.

일곱째, 하늘의 천신과 호법선신들이 그를 사랑하고 수호합니다.

여덟째, 무한한 복덕과 행운이 깃들게 됩니다.

아홉째, 죽은 뒤에는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는 복을 쌓게 됩니다.

열째, 생전에 깨달음에 이르는 열반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와 같은 열 가지 예불의 공덕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삶과 수행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불을 통해 얻는 실제 이익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예불은 나를 가로막는 ‘아상我相’과 『구사론』에 나오는 일곱 가지 만심慢心을 자연스레 꺾게 하고, 겸손과 존경의 마음을 키우도록 해줍니다. 또한, 서원과 원력이 굳건해져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같은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줍니다.

예불 중에 과거 잘못을 참회하며 마음이 정화되어, 몸과 말, 생각으로 지은 모든 잘못이 씻깁니다. 이로써 삼업三業이 청정해져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정성껏 예배드리는 행위는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 운문사에서는 조석 예불시 예불 끝에 108대에참을 하고 있습니다.

절을 꾸준히 하면 혈압 조절, 소화기능 개선, 신체 통증 완화, 심신 안정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절을 많이 해서 무릎이 상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경우는 대개 시간에 쫓기거나, 욕심을 내어 절을 빠르게 반복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호흡과 리듬에 맞추어 무리하지 않게 절을 한다면, 절은 오히려 관절과 근육을 고루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건강에 매우 이로운 수행입니다. 실제로 여러 불자님들이나 수행자들의 사례를 보면 마음의 장애와 몸의 병을 치유한 사례가 많습니다.

더불어 예불은 마음의 산란을 잠재우고 집중력과 정진력을 높이며, 지혜를 증진시키는 힘을 줍니다.

예배와 예불은 공경과 겸손의 근본이자 참회와 복덕의 씨앗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수행과 신심의 길이 있을까요? 매일의 절과 예불이 우리의 수행을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동산양개화상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 무한서처無寒暑處입니다. 추위가 오면 추위와 더불어 철저히 하나가 되고 더위가 오면 더 더운 곳으로 가 더위와 철저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수행에 힘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예불을 올리는 자세야말로 우리 초발심 수행자들의 삶에 깊은 힘과 흔들림 없는 중심中心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ॐ



불기자심不欺自心

해묵 / 사교과(3학년)

안녕하십니까? 사교반 해묵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들리십니까?

오른팔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이번엔 왼팔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팔을 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실 '오른팔' '왼팔' 하는 소리는 우리의 흉근과 성대를 이용해서 내는 하나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로 이해해서 몸으로 수행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은 출가 전부터 저의 오랜 화두였습니다.

다시 누가 팔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 이름을 들어서 "해묵이 팔을 들었다"라고 답한다면 '해묵'이라는 이름은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는 이름일 뿐이지요. 만약 제가 제 몸을 가리켜서 "이 몸이 팔을 들었다"라고 답한다면, 몸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경계를 짓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면? 여전히 '나'라고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 잘린 손가락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이 어디까지 있을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을 나라고 한다면 죽은 시체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자 중 다수는 의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라고 말함

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학습하는 인간과 똑같이 생긴 AI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살아 있는 생명과 똑같이 여기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윤회와 무아를 둘 다 설하셨는데 무아이면서 동시에 다음 생으로 나를 끌고 가는 주체인 '식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종교마다, 종파마다 다양한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식으로 안 것은 체득한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2500여 년 전에 직접 그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 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매 찰나 어디로 가는지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에 핵폭탄이 터질지 청풍료가 무너질지 그 누구도 100퍼센트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음 찰나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한마디 이르지 못한다면 이 일대사를 해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육도를 윤회轉하는 자신에게 분개심을 느끼십니까? 이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양심에 장막을 씌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이 일을 해결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토록 중대한 일에 왜 빠져리게 사무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떠올린 다섯 가지 자기기만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증상만입니다. 증상만이란 일곱 가지 '만慢' 가운데 하나로, 자신이 이미 어떠한 수행적 과실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하다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타심통이 생기거나 자신이나 남의 과거나 미래가 보이는 경우 등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은 다소 멀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이유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수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꼭 부처님의 가장 심오한 법문이나 조사 어록을 참고해서 자신이 그것들에 밝은지, 또 선지식을 찾아가서 공부를 제대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기 경전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 사문사과沙門四果가 나오고 화엄경 등 대승 경전에도 십지十地 등 여러 가지 수행 계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수행의 과정이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점진적인 의식적 전환이 있어야 함을 알려 줍니다.

둘째로는 경전이나 선어록을 해석할 줄 아는 것을 마치 그것을 증득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 선생님께서 발차기부터 물에 뜨는 법과 헤엄치는 법을 몸으로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하는 법을 정리해 놓은 책을 읽고 또 학문적으로 그 이론만 탐구한다면 과연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이 아주 안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물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절대로 수영을 익힐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즉 생사윤회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법을 증득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각자가 가진 소견대로 받아들이고 마는 경우입니다. 마조 선사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설하셨고 임제 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을 설하셨습니다. ‘평상심시도’는 ‘평소 마음이 곧 도이다’로 직역 되고 이 말은 언뜻 듣기에 평소 마음이 곧 도이니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수처작주 입처개진’은 ‘머무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이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주인으로 살아라’ 정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일반적인 교양과 지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본뜻을 크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에 쉽게 틀렸다는 잣대를 들이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출가자들은 이 말씀들이 모두 깨달음의 분상에서 설해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조 선사가 평상심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볼까요? “평상심이란 ‘무조작無造作’, ‘무시비無是非’, ‘무취사無取捨’이다. 즉 ‘꾸민 마음, 시시비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 화내거나 분노하는 마음, 좋아서 흥분하고 싫어서 우울한 마음과 같은 중생심이 없는 상태’가 평상심이라는 말입니다. 곧 해탈의 마음이자 부처의 마음이고 다시 말하면, 각고의 정진 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평상심이지 지금 우리가 가진 중생심의 상태가 평상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평상심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실 겁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이런 해석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비판어래裨販如來, 즉 부처님을 팔아 자신의 아상을 채우는 경우입니다. 전

법을 하거나 공덕을 쌓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이 펼치고 싶었던 재능과 능력을 한껏 부리며 명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교란 어떤 것인지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숙고해 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문아명자면삼도 견아형자득해탈聞我名者免三途 見我形者得解脫’이라는 행선축원의 구절처럼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상대가 감화되지 않는다면 포교보다는 반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이익, 명예, 칭찬, 편안함, 손해, 비방, 비난, 괴로움 등의 팔풍八風에 휘둘리는 상태라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을까요? 선가귀감 평에는 스님의 본분도 비껴가고 속인의 신분도 피해 가는 박쥐승, 혀는 있으되 법을 설하지 못하는 병어리 아양승, 겉모습은 스님이지만 마음속은 속인이나 까까머리 거사인 독거승, 죄가 무거워 돌이킬 수 없는 지옥재, 부처님을 팔아 생계를 도모하는 가사 입은 도적이 나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자신을 기만에서 잘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처의 궁극적인 행은 보살도이기에 깨달음을 미루고 보살행을 한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비심이란 자타가 끊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경지에 가기 이전에 하는 보살행은 ‘상相’, 즉 인간으로서 각자가 가진 관념 아래에서 하는 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행의 인과에 대해 완전히 밝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순에 부딪히거나 종종 의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약보살 유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즉비보살若菩薩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則非菩薩’ 즉,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로 미루어보면 우리가 일체 고정관념인 상을 여의지 않는다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보살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금강경오가해에서 육조 스님은 ‘심유능소心有能所 하면 즉비복덕성即非福德性이요 능소심能所心이 멸滅해야사 시명복덕성是名福德性이라’ 곧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복덕이 되지 못하고 능소가 사라져야지만 복덕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살이 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그 복덕은 유위有爲의 복덕은 될 수 있을지언정, 무위無爲의 복덕, 즉 해탈에 도움이 되는 복덕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도리는 양 무제와 달마 대사의 일화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 무제는 달마 대사

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절을 짓고 경문을 직접 옮기기도 했으며, 많은 스님을 지원하였소.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겠소?” 달마 대사는 “무無”라고 하셨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육바라밀은 언제까지나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方便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수행의 목적과方便을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완전히 끊고 자신만의 수행을 챙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색 선사는 ‘좌선하는 법’의 첫머리 ‘학반야보살學般若菩薩은 선당기대비심先當起大悲心 하고 발홍서원發弘誓願하며 정수삼매精修三昧하야 서도중생誓度衆生이요 불위일신不爲一身 하야 독구해탈獨求解脫이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켜야 하고 큰 서원을 발하며 삼매를 정밀하게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할 것이요, 자기 한 몸만을 위해서 해탈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좌복에 앉기 이전에 모든 중생을 위한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선정에 깊이 들 수도, 부처를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착오들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발심해서 가족, 직업,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놓고 여기에 와서 부처님의 가사를 수하신 여러분, 앞으로 눈을 감을 때까지 무엇에 삶을 바쳐서 정진하시겠습니까?

아인망처초삼계 대오진공증법신 我人忘處超三界 大悟眞空證法身
무영수두화난만 청산의구겁전춘 無影樹頭花爛漫 靑山依舊劫前春
아상 인상이 끊어진 곳에서 삼계를 초월하고 진공을 크게 깨달아 법신을 증득하니
그림자 없는 가지 끝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청산은 옛을 의지하여 겁 이전의 봄이로다.
-『석문의범釋門儀範』「대예참례大禮懺禮」中-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모두 함께 일도정진一道精進하여서 필경무불급중생畢竟無佛及衆生을 이룹시다. ॐ

천계만사량
千計萬思量
홍로일점설
紅爐一點雪

편집부



종정예하 큰스님 역사문화관 회주 스님 전시 관람



통제대비의 마음으로-천도스님 특강



부산시민회관에서 즐거운 공연 관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쉽고 친절한 불교
-청도 유등제 운문사 부스



고소한 진 냄새가 도량 가득-치문반 자색



여법한 법사 스님을 모시고-차례법문



여름불교학교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신라 천 년의 숨결을 느끼며-화엄반 남산 순례



수행자의 미소-사찰승가대학 학인수행프로그램 참가



농작물이 싹싹 운문인도 싹싹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법공양

불교초보탈출 100문 100답

- 불교가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

주성 / 한문불전대학원

이건 진심이다.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을 한 움큼 따다가 가슴에 살포시 달아 드리고 싶은 분.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내가 아직 용케도 승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를 주시는 분. 고故 도남圖南 김성철 교수님. 해결되지 못한 이런저런 잦은 질문들로 잠 못 이루는 많은 밤들에 생명 같은 안식을 가져다주신 분. 가슴 따뜻한 불교학자셨으며, 무엇보다도 신실한 부처님의 제자로 올곧게 수행 생활을 하셨던, 고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님의 책 『불교초보탈출 100문 100답 (부제: 김성철 교수의 체계불학)』을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한다. 초기불전과 대승경전을 종횡으로 가로지르며,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한 명쾌하고도 정성스런(이게 굉장히 감동이다!) 교수님의 답변들을 꼼꼼히 읽다 보면, 그 모든 혼돈 가운데 조금씩 안식을 얻고 어느새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따뜻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여담을 더 늘어놓자. 질풍노도의 운문사 학인, 그것도 사집반 시절이었다. 조계종 교육원 이러닝 홈페이지에서 김성철 교수님의 <중관사상> 강의를 들었다. 강의 내용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끝까지 들었다. 이어서 도반 스님에게 강의 과일을 받아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강의까지 찾아 들었다. 되돌

아보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사집을 건더 내었고, 화엄까지 큰 사고 없이(?) 무사하게 졸업하게 된 것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로 위대하다는 것을 어렵잖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가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강원 생활 중에 육하고 올라오는 순간이 왜 없었겠느냐마는, 이런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니 '건더 내보자'라는 대견한 결론을 내리는 걸로 대충 마무리가 되고는 하였다.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이 글은 교수님을 향한 나의 수줍은 오마주임을 미리 밝힌다.

김성철 교수님의 개인 홈페이지인 체계불학 카페(<https://m.cafe.daum.net/buddhology>) <불교 문답 게시판>에 만 3년 동안(2005년 1월~2008년 6월) 올라온 문답 중에서 엄선된 100개의 문답이 책으로 엮였다. 질문자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불교 초심자, 불교 전공 학생, 무종교인, 이웃 종교인, 종교다원주의자, 수학 교수, 물리학 교수, 그리고 스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불교와 관련하여 갖가지 질문을 올렸다. 그중에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현학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100개를 추린 다음 네 개의 장(수행, 교리, 생로병사와 윤리, 불교와 이웃종교)으로 다시 나누었다. 그리고 '신앙과 수행의 불교학'인 '체계불학(Systematic Buddhology)'의 관점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체계불학體系佛學(Systematic Buddhology)은 불교학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교수님께서 고안하신 신조어이다. 현대의 문헌학적 연구 성과에 토대를 두고 “초기불교에서 대소승, 그리고 밀교와 정토, 화엄과 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사상을 수미일관한” 하나의 신행 체계로 구성해 내는 불교학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과 수행의 불교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불학佛學이 기독교 신학神學(Theology)에 대응하는 용어라는 점이다. 초창기 서구의 불교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닌 채로,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 불교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 그들은 인문학적 호기심에 기반을 두고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지 않는 불교의 신비적인 교리들을 모두 제거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교리만을 불교라고 규정해 왔다. 서구에서 시작한 현대의 인문학적 불교는 '훼불毀佛의 불교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불교의 신앙과 수행을 무너뜨려 불교의 종교성을 훼손하였다. 나아가 종교 성전聖典으로서의 불전佛典을 일개 인문 교양 도서로 전락시킬 위험 요소를 내포한다.



그러나 불교학을 포괄하는 불학은 '깨달음의 학문', 즉 '각학覺學'이다. 교수님은 '접신接神의 학문'인 '신학'을 불학의 하위분과에 위치시키는 것이 옳으나, 기독교 신학의 사고방식이 만연한 작금의 학문 풍토에서는 요원한 일이기에 전략적으로 불학을 신학과 대등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조직신학'에 비견되는 체계불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그 문제의식을 밝혔다. 그리고 현대불교학의 인문학적 연구 성과 중 옥석玉石을 감별하여 수미일관한 신행 체계로 구성해 내는 '체계불학'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탄생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첫 번째 장인 〈수행〉의 장에서는 '불교 신행 목표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도를 닦는 것인지', '불교 수행을 하지 않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초창기 선승들은 좌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조사선의 수행법은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되었는지'에서부터, 중관, 위빠사나, 남종선과 간화선, 선문답,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탄트라와 밀교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전반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다채롭고 핵심적인 문답이 펼쳐진다. 두 번째 〈교리〉의 장에서는 불교의 시간론과 공간론, 연기, 윤회, 오온, 12처, 공, 중관, 유식, 여래장 사상 등 불교 교리의 정수精髓를 다룬다. 세 번째 〈생로병사와 윤리〉의 장에서는 '선과 악, 윤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음욕을 제어할 수 있는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미타불의 서방극락정토는 삼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등 실제 생활과 연관된 흥미로운 질문들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 〈불교와 이웃종교〉의 장에서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불교의 열반과 기독교의 영혼 불멸 사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진여는 힌두교의 브라만과 같은 것인지', '여래장이나 불성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개념인지' 등 현대의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진중한 문답들로 막을 내린다.

두 개의 문답을 소개한다.

【문 17】 초창기의 선승들은 좌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 좌선 수행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당시 스님들이 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계, 정, 혜 삼학 가운데 지계와 좌선은 그 당시 스님들의 '다반사茶飯事'였기에 그것을 굳이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문 84 】 모든 종교가 동일한 '진리' 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 답 】 진리는 오직 불교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고 가르치신 연기법만이 진리입니다. 불교의 종교성, 철학, 윤리, 실천 등등 모든 것이 연기법에 근거합니다. 힌두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등이 반드시 나쁜 종교는 아니지만, 정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온갖 정보와 법문이 만연한 인터넷 세상이다. 소위 네이버 지식검색, 다음 카페, 유튜브 등에는 출재가를 막론하고 이른바 선지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과연 그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정법正法과 사법邪法을 가리는 지혜의 안목이 절실하다.

술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 가슴앓이하며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대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나 자신에게 이 책을 진심을 담아 추천한다. 더 많은 질문들로 번민하신다면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올려 주신 주옥같은 많은 답변들이 교수님의 다음(daum) 체계불학 카페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 부디 방문하시기를 권한다. 뜬구름 잡는 알 듯 모를 듯 모호한 답변이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명쾌하며 체계적인 그리고 아주 정성스런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타의 귀한 불교 자료들을 비롯하여 교수님의 칼럼과 논문까지 찾아볼 수 있으니 귀한 공부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괴로움을 여의고 종국에는 열반에 이르기를 소원한다. 교수님께서 속히 사바세계로 돌아오셔서 다시 널리 법을 설해 주시기를, 당신께서 초석을 다지신 '체계불학' 을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곡히 발원한다. 교수님의 한없이 따스한 미소가 불쑥 그리워진다. ॥

AI 시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정보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직접 경험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정보가 평안과 행복을 증진하며 공동체에 이로운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깨어 있는 지혜와 비판적인 통찰력을 통해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피고, 직접 경험으로 증명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AI는 믿음직한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댓글은 사람과의 구별이 어려워 여론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도 울린다. 이는 AI가 단순한 정보 생성을 넘어, 인간의 감성과 사고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조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거나 맥락과 관계없는 답을 마치 진실인 듯 답변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 현상은 AI 생성 정보가 그럴듯해도, 사실적 근거 없이 완전히 꾸며낸 내용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정보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다.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은 AI가 만든 허위 조작 정보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보고 싶으니까 보고, 믿고 싶으니까 믿는' 태도를 버리고, 내 귀에 달콤한 정보일수록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검증해보는 '숙고'와 '반조'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AI 시대의 나침반

부처님께서는 이미 독단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에 대해 설하셨다.

갈라마족이 세존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 오는 수행자들과 브라만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역설하면서, 다른 이들의 가르침은 비하하고, 매도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또 다른 무리가 찾아와 자신들의 가르

침을 설파하고 역설하면서, 다른 이들의 가르침은 비하하고, 매도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세 존이시여, 저희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의심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갈라마 사람들이여, 입으로 전해진다고 해서, 범백이 이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경전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논리나 추론, 생각으로 옳다고 해서, 심사숙고하여 받아들였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서, 또는 ‘저 이는 나의 스승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지혜의 가르침은 AI가 생성하는 그럴듯한 정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댓글, 심지어 전문가의 탈을 쓴 허위 정보에 대해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특히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유창하게 제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든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부처님께서서는 나아가 “스스로, ‘이것은 선한 가르침이다. 비난받을 것이 없다. 지혜로운 이들이 칭찬하는 것이다. 익히고 닦는다면 평안과 행복이 따른다.’고 생각되면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이롭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지혜로운 이들이 칭찬하고, 익히고 닦으면 평안과 행복이 따르는 것이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떠나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성생활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이라는 가르침도 함께 주셨다.

이는 우리가 정보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직접 경험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보가 평안과 행복을 증진하며 공동체에 이로운지를 살펴야 한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낸다 해도, 그것이 분별없는 탐욕이나 증오를 일으킨다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AI는 분명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므로 그 장단점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깨어 있는 지혜와 비판적인 통찰력을 통해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피고, 직접 경험으로 증명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AI는 믿음직한 도구가 되어 줄 것이다. ☸



▲ 동련 제78차 전국 지도자 연수회



▲ 종정예하 중봉 성파 큰스님 법문



▲ 결계포살



▲ 운문승가대학-백천문화재단 MOU협약식



▲ 해인사 장경도감(판각학교)

- 5월 30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5월 31일 단오 산행을 하였습니다. 화엄반은 남산 순례를 하였습니다.
- 6월 13일 여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4일 청도 유등제에 은광 주지 스님의 인솔하에 학인 스님들이 참가하여 운문사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 6월 14일 ~ 15일 경주 황룡사에서 개최된 동련 제78차 전국 지도자연수회에 송운 포 교전법부 고문 스님과 학인 스님들이 참가했습니다.
- 6월 16일 종정예하 중봉 성파 큰스님 법문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9일 여름철 결계포살이 진광 강주 스님을 단주로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사단법인 상원결사에서 주최한 문화공연 <우리가 멈춰야 할 때 : PAUSE>를 일진 율주 스님을 비롯한 어른 스님들과 학인 스님들이 관람하였습니다.
- 6월 23일 강원 학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한 <운문사승가대학-백천문화재단 MOU협약식>이 종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천도 스님의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시대-불교적 실천> 특강이 역사문화관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 7월 4일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5일 법공양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0일 치문반 자색이 있었습니다.
- 7월 14일 마곡사에서 진행된 1박2일 전국 학인 수행 프로그램에 원법 학감 스님 ~ 15일 인솔하에 학인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7월 18일 해인사 장경도감(판각학교)에서 개설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대상 필만대장경 전통각법 교육>에 영덕 학장 스님 인솔하에 학인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7월 26일 ~ 27일 'O.N. 마음을 다해 수처작주'라는 주제로 제45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1박 2일간 열렸습니다.
- 8월 2일 종강을 하였습니다.
- 8월 3일 여름철 마지막 자자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8월 4일 45일간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송암사 • 김성옥 • 김현주 • 무여거사 • 박재철 • 박형수 • 윤금자 • 이재길
• 이정숙 • 정해옥 • 조서영 • 주건우 • 차재문 • 최희영 • 하옥희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 운문지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다음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①주소 ②수령인 ③부수 ☎ 010-7403-7118

- * 주소록 업데이트를 위해 기존 정기구독자 분들도 편집실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역사문화관 전시작품

명성 회주 스님



『반야심경般若心經』은 반야 경전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요약하여 압축적으로 풀어낸 불교 경전입니다. ㉠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 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 372-8800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으며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사라지고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지네

- 「대반열반경」 中 -

그동안 계간지 「운문」을 아껴 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부터는 반년간지 「운문」으로 개편하여
 1년에 두 번(1월/7월 예정) 찾아뵙겠습니다.
 운문사 소식 및 운문지는
 운문사홈페이지(<http://www.unmunsa.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雲門寺僧伽大學

• 운문지 발행에 사용된 종이는 100% 친환경 재생지입니다.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통권 제172호·2025년 7월 30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선재 / 편집위원·선재, 명주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선재 / 편집디자인·디자인마루 (053)426-3395